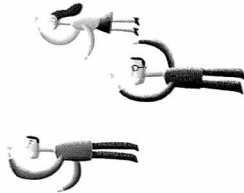




Opinion

회원사 소식 및 의견



SI사업의 총체적 어려움 해결 필요

국내 영업이 어려운 이유는 공공분야 SI사업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업체 난립으로 업체간 출혈경쟁의 영향 때문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프로젝트 수행 시 추가 요구사항이 많고 그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소프트웨어대가기준'이 '커미션포인트'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최저가 입찰방식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고 대기업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므로 국내 시장에서의 이익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쌍용정보통신(주)

CB상황에 따른 기업 자금의 어려움

2004년 6월 CB 도래로 2004년도 재무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대다수 중소기업이 금년 6월경 CB상황기한으로 정부의 CB 자금 회수 등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프리즘커뮤니케이션스(주)

인력 부족과 특허 출원기간 단축 필요

중소기업의 경우 대졸 신입사원을 뽑아 6개월에서 1년의 교육 기간을 짧게 하나, 경력을 쌓은 후 보수조건이 나은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런 경우 6개월~1년 정도 교육기간에 들어가는 임금을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보유기술에 대해 특허를 내면 상용화 될 때까지 2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급변하는 IT시장에서 사장되어버리게 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바로 제품화해서 매출로 연결하고 있음. 정부에서 IT기업들의 특허 출원기간을 단축해줄 필요가 있다.

(주)아이오시스팀

IT부품산업 육성 필요

일부 반도체산업 등을 제외하고는 부품산업 전체적으로 LG, 삼성을 제외한 중견기업은 몰락한 상황이다. 또 부품산업 생산

※ 이 코너는 회원사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습니다. 사업운영의 애로점이나 기타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해 주십시오. 열심히 듣고 같이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기지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어 부품수요는 더욱 저하되어 '부품 산업성장율>IT산업성장율' 이어야 건설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인데 역전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산업 공동화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 몰락과 우리나라의 '부품조립국'화 되어가고 있으며, 국산 부품개발이 매우 어려워져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첨단산업으로 갈수록 부품이 더욱 열악하다. 반면 일본의 경우 부품업체가 건재한데 이는 대기업에서 하청업체를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적극 지원함에 기인하고 있다.

한국몰렉스(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살아가야

부가가치가 높은 SW 기술개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모든 생활가전이나 컴퓨터, IT장비의 작동은 결국 SW이므로 판과 부처간 힘의 확대보다는 SW산업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정책수립이나 지원이 필요하다. 특정 SW 지배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개SW 지원 정책에 찬성한다. 또한 단순용역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 중심의 산업을 키워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 분리와 일한만큼 벌고 세금내는 기업 문화가 필요하다.

(주)현영시스템즈

제품 시장 확대 필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그렇듯이 기반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상품의 판로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다.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와 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원텍코리아/미디어솔루션

IDC 중소기업 지원방안 강구 등

IDC 산업의 공정경쟁을 위한 정부규제, 중소기업 보호정책 등이 필요하다. IDC 요금체계 비현실성, 원가상승으로 중소기업의 공정한 시장경쟁이 어려운 실정이다. (표준요금은 상승, 소비자는 실제 하락, 중소기업의 원가부담은 가중)

IDC사업자의 경우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력 요금 부과가 필요하다. Thin서버의 경우 Pan가동, 향온향습 등으로 단위면적당 실

전력소비량이 상승하고 있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산업용전력으로 요금부과가 필요한 실정이다.

중소 IDC업체의 워바이러스 등 보안대책과 관련하여 정보보호설비 도입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며, 정보보호 진단컨설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프리즘커뮤니케이션스(주)

생체인식시스템 인증제도 마련

생체인식시스템에 대한 국가인증(K4)이 없어 관련사업자의 시장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패스21 사건, 시장 미활성화 등으로 인해 2003년에 대다수 생체인식업체가 도산하여 현재는 약 10개사가 있으나 열악한 실정이다.

(주)다보넷

정부의 공인인증서 등 실명확인방법 강구

경매는 인터넷 거래이므로 경매에 참여한 본인이 실제 본인인지에 대한 확인에 애로가 있어 명의도용의 소지가 많다.

정부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 등 경매참여자에 대한 명확한 본인확인방안이 필요하다.

(주)옥션

회원사
사무실 이전

(주)온라인패스

이사일 : 2004.6.12(토)

변경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29-4

영일빌딩2층 (주)온라인패스

변경 전화번호 : 02-3474-2800(대표번호),

02-3474-2503(유지보수팀),

02-3474-4980(Fax)

찾아오시는 길 : 남부터미널 근처